교양기초교육연구 제3권 제2호 (2022) pp.5-40
https://doi.org/10.37998/LE.2022.3.2.1

불확실성 시대의 근대적 사고체계 부활과 대학교양교육의 재귀적 논의
- 분열적 문화구조에 대한 해석 -

민 웅 기*

목 차

Ⅰ. 서 론
Ⅱ.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 시대의 도래와 인간 인식의 변화
Ⅲ. 근대적 사고체계의 부활과 집단적 문화구조로의 전이
Ⅳ. 유연사회에서 고려할 대학교양교육의 재귀적 논의
Ⅴ. 결 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도래한 이 불확실성 시대에 근대적 사고체계가 어떤 경로로 부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과 의미를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교양교육의 재귀적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탈근대적 가치로 인식되어 온 개별화, 파편화된 문화 다양성에 기반을 둔 사회질서가 공공적이면서 집합적 가치에 포함된 합리성, 효율성에 기반을 둔 근대적 가치로 재전환되고 있다. 현대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이 같은 근대적 사고체계의 부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행적이면서도 분열적인 전환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보편적 교양교육을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문가

* 목원대 교수, sunppk@mokwon.ac.kr

집단에 의해 구축되는 안전의 신뢰관계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 역량 강화 과정을 추동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에 대한 재귀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유연사회에서의 대학교양교육은 인간이 현재의 분열적 문화구조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보편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대학교양교육, 근대적 사고, 집합적 가치, 불확실성 시대, 인간 역량 강화

Ⅰ. 서 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세계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기인한 각종 위험 기제들의 확장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동안 인간이 적절하게 대응해온 환경의 영향력이 강해졌고, 인간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했던 역기능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함을 뜻한다. 탈근대사회에서 당연시했던 기존의 문화구조와 사회체계의 재구조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 소위 탈근대사회를 맞이하여 인류가 과거의 것으로 치부한 근대성의 가치가 다시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집합적 생존을 원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동질적 문화와 안전에 대한 공동체의 욕구,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단선적 시간관 등은 최근 인간의 의식 세계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이전에 이미 성별, 지역, 세대 등의 변인에 관계없이 실제적 삶에서 안정화되어 간과했던 기존의 신념과 가치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최근 큰 관심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일상적 실재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 존재가 인식하는 본원적 가치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제 근대성에 기반을 둔

중요한 사고체계 유형인 생존의 권리에 대한 인간의 불만족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심리적 기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으며, 단절과 폐쇄에 기반을 둔 분열적 문화구조를 넘어서야 하는 효율성에 기반을 둔 근대적 사고체계의 회귀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1)]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단순히 인간 삶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탈근대적 가치의 일부이기도 한 인간 본연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는 자기 규율에 대한 자유가 없어졌으며, 즉시적 죽음과 관련한 시간의 단절적 문화코드를 양산했다.[2)] 이는 전통적인 근대적 사고체계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는 근대성의 가치에서 비롯되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진보 이데올로기의 가치들이 다시 회귀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가치는 기존의 탈근대적 가치인 다차원적인 사회질서의 불협화음과 연계되어 인간 존재에 직접적으로 공포와 무기력의 심리 기제들을 불어넣고 있다.

근대사회에서 인간은 사회현상과 관련한 과거의 존재 양태를 기준으로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단선적으로 예측하여 보편화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보여왔다. 이는 소위 원자론적 세계관에 의한 분화된 문명 속에서 인간이 생존했기 때문이다.[3)] 따라서 지금도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특징을 과거와 비교하여 논의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기가 과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 과거와 현재의 비교 과정이 실상 연속적 문화코드에 근거를 두고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4)]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우

1)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Polity Press, 1991.
2) Wendy Griswold, *Cultures and societies in a changing world*, Pine Forge Press, 1994.
3) 김문조,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나남, 2013.
4) 민웅기 · 김상학,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집합기억과 시민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순천향인문과학논총』,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40권 제2호, 2001, 57-84쪽.

리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과거와 미래의 문화 현상을 성찰하게 되는 근대적 사고의 축적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근대성의 가치에 기반을 둔 역행적 문화코드의 새로운 재구조화 과정에 의해 탈산업사회를 지배해왔던 불확실성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도 전환되고 있다. 이미 안정된 권리라고 생각되었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가치사슬이 무너지면서 과거 기억의 산물들이 현재에 재배치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인식 상황은 과거에 다른 바이러스가 만연했던 시기나 국가적, 세계적 위기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발생한 근대성의 문화적 사고체계로 다시 전이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근대사회에서 생존과 관련한 안전문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목적합리적, 가치합리적 행위를 실천해왔다. 다양한 시민권의 재건 시기는 바로 이 같은 합리적 근대성의 질서가 정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탈근대사회로 명명되었던 현대사회에서 다시 과거 근대성의 문화가 행위와 구조 간의 활발한 역사적 의사소통과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구성원 간 합의된 보편적 가치의 형태로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다.[5] 사회구성원들은 단선적 과거 시간에 대한 사실적 회고를 근거로 더 나은 현재의 문화 코드를 축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유대, 연대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의미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식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안전을 위한 집단적 통제에 따른 개별화, 개인화라는 인간 존재의 대전제조건이 평가 절하되면서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6] 코로나 상황에서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통제와 개인의 순응적 양식은 이를 잘 나타내어준다.

이처럼 이제 인간이 인식하는 진리 체계를 둘러싼 탈문화적 사고방식은

5) John B. Thompson,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ritical social theory in the era of mass communic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6) Ulrich Beck,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trans. by Mark Ritter, Sage Publications, 1992.

재정립되고 있다. 복잡한 삶의 의미와 실재가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단일질서의 문화적 기호는 인간에게 새로운 문화를 사회화시키는 교육기관의 학습콘텐츠로 부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위험사회에 근본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재귀적으로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불확실성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여러 교육체계 중 특히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체계에서의 교양교육은 인간이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대변되는 거시문화적 산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대학 내 전공교육체계의 교육목적이 여전히 전문화, 개별화된 직업 내 전문분야 지식학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현실이라면 대학의 교양교육은 최근 불확실성 시대의 근대적 사회체계의 부활 과정에서 인간들이 분열적 문화구조를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준다. 대학교양교육과 관련한 지적 생산의 가치에 입각한 지혜의 프레임들은 불확실성 사회에 구성원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주며, 이 불확실성의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문화코드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경험적 의미체계를 학습자에게 전달한다.

결국 이 같은 사회적 구성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실존적 의미에 대한 대학교양교육의 학습 콘텐츠는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는 현 시점의 거시적 사회변동 속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마치 근대사회의 효율성 및 생산성 중심의 가치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체계가 분기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구체성을 담보한 지식 교육에 대한 재귀적 논의를 할 시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과거 시장 중심적 전공 중심 교육과는 차별화된 또 하나의 사회생산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근대적 가치 형성의 교육 질서라 할 수 있다. 이 교양교육과정은 인간 생존의 가치에 대한 사회철학적 논의와 함께 윤리적 근본 가치 및 소양에 대한 교육의 본원적 의미를 재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들면서 주로 융합형 지식의 시대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당시 일부 연구자들은 그 지식이 개별 학문체계의 연구를 기반으로 어떻게 화학적 결합의 형태로 융합되는지를 충분하게 고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지식들의 단순 물리적 결합만을 추구했던 것도 일정 부분 부인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기에 필요한 융합지식 학습의 전제는 기존의 단절적 단일지식의 당위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학문 추구의 경향성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단일지식의 가치에 기반을 둔 근대적 사고체계의 중요성이 현재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양교육의 역할 역시 다시 한 번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문화가 정착된 이 불확실성 시대에 근대적 사고체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새로운 문화구조로 전이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현상과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대학교양교육 분야에서 추구해야 할 집합적 욕구 및 집단 윤리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고, 유연사회로 재구조화되고 있는 사회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대학교양교육 기반 인간 역량의 내면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불확실성 시대의 분열적 문화코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대응을 위해 대학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재귀적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Ⅱ.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 시대의 도래와 인간 인식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까지 산업화 시대에 사회질서를 변화시킨 주요 원인이자 매개체 중 하나는 과학기술이었다. 과학기술

7) 민웅기, 「위험사회에 필요한 대학교양교육의 사고체계 탐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대의 상상력 구현」, 『대학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1호,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22, 5-24쪽.

은 인간의 새로운 문화활동을 확산하는 의사소통망을 확충하기도 하고, 상징적인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굳이 과학기술결정론적 사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계 각 국가는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여러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경험했다. 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된 것만은 아니었다. 국가와 기업, 지역 커뮤니티의 연결망을 확대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의 근원적 소통구조를 원활하게 유지해 주는 기능을 수행했다.[8] 따라서 이 기술적 소통구조를 통해 신뢰에 근거한 네트워크망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이 사회적 안전구조는 주체적 시민사회 영역의 한 부분으로 구축되었다.[9]

근대사회에서 이 네트워크는 생활 단위 구성원들의 안전문화를 연계해주었다. 이 사회적 자본은 협력을 통해 관련 이익을 둘러싼 연대와 공조를 용이하게 하며, 생존에 필요한 규범, 신뢰 등을 생산해 내는 자기 조직화 과정을 수반하기도 했다.[10] 안정적인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구조는 근대성을 지탱해온 개인적 생산력의 증대를 당연시하면서 덧붙여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적 공공재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을 통한 네트워크는 인간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에 근거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과학기술에 근거한 연대의 질서에 과거 꾸준히 논의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는 미시적 인간 행동 측면에서 발현되는 개인 합리성과 공동체적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시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합리성의 조화를 동시에 강조한

8) 유승호, 『디지털 시대의 영상과 문화』, 미술과 문화, 2006; Laurence J. O'Toole, Jr., "Treating networks seriously: Practical and research based agenda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 1997, pp.45-52.
9) Robert D.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1993, pp.35-42.
10) Robert D. Putnam, 위의 글; 제러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이희재 역, 민음사, 2001; Francis Fukuyama,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1995.

다는 점에서 고전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한층 더 진보시키고 있다.[11] 예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흐름,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백신 구매를 위한 맵(map)구축, 코로나19 확진 및 진료체계 등의 공론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효율성이라는 근대적 진보 가치가 중요한 사고체계의 전면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12] 불확실성 시대에 근대적 사고체계의 부활과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사회 공존의 권리라는 근대성에 입각한 이 이분법적 사고체계 역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의 인식체계로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대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시대에 회귀하고 있는 근대적 사고체계의 구성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 근대사회에서의 문화주의 진영 속에 자리 잡았던 사고는 미래의 나은 삶을 위한 프로메테우스적 신화의 사고체계에 대한 승리를 예견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탈근대사회를 맞이하여 무조건적인 미래에 대한 관심보다 현실에 충실한 디오니소스적 삶에 사고체계의 중요성이 사람들의 인식 초점이 맞추어져왔다.[13]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적 측면에 대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근대적 사고체계가 부활하고 있다. 확실하게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동경하면서 현재 삶에서 잊어버린 규범, 정의, 상식 등과 같은 보편적 사회 가치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분열적 문화구조에 대한 인간의 해석적 사고를 지지하는 도서, 영상 등의 시대적 산물들은 오랜 기간 사람들의 사고체계에 대한 공감의 지지를 보내주었다.[14]

---

11)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12) 민웅기 · 김상학, 앞의 글.
13) 미셸 마페졸리, 『현대를 생각한다: 이미지와 스타일의 시대』, 박재환 · 이상훈 역, 문예출판사, 1997; 질베르 뒤랑, 『상상력의 과학과 철학』, 진형준 역, 살림, 1997.
14) John K. 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Hamish Hamilton, 1967.

더불어 앞서 언급한 효율성에 근거를 둔 기술적 네트워크는 이 분열적 문화구조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추동하는 사회화 과정의 설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다양한 인지적 네트워크, 즉시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매체를 활용한 교육콘텐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 집단의 상호 피드백 작용은 그 구체적인 지식 학습 과정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또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는 학습과정에서 얻게 되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보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15] 이처럼 근대성의 가치에 입각한 지식 전달 과정은 실존적인 인간과 사회의 정체성 형성과 연관된다.

결국 불확실성 시대에 나타난 다양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재해석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은 문명사회의 지식 의존성을 강화한다. 또한 이 불확실성에 기인한 집합적 위험 상황은 인간 스스로가 부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회구성원들의 존재론적 의미 속에서 그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은 불안에 대해서 과거 타인이 겪은 위험을 간접적으로 목격하고 기억했다가 자신에게 적용하기도 한다. 위험, 안전 등을 주제로 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학술적 논의는 합리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사고체계를 부활시켜 교육 분야 역시 시의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교육콘텐츠의 효용성에 대한 재귀적 논의가 가능하게끔 도와준다.[16]

한 예로 이미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인간 개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졌던 자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다. 개별화된 인간의 자유가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집합적, 공공적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통제되기도 한다. 자유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절된 인간 개인 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행위로서의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사회를 통해 강화된 개인주의와 집단

15) David H. Rose, Anne Meyer, & Chuck Hitchcock (Eds.), *The universally designed classroom: Accessible curriculum and digital technologies*, Harvard Education Press, 2006.
16) 민웅기 · 김상학, 앞의 글.

안전을 위한 공동체의 욕구가 충돌하여 집합적 가치가 우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17]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집단 전체의 안위 및 개인 자유와 관련한 인간 가치관의 혼돈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근원적 인간 생존과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실존적 의미와 인성에 대해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근대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교육과정에서의 이 절대적 가치에 내재한 의미는 사회공공적 차원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지식 연구와 학습을 위한 주제가 되기도 한다. 집합성에서 비롯된 인간의 생존 욕구는 개인 삶의 계획을 모호하지 않은 방법으로 치환할 수 있는 포괄적 규범을 상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인간 인식체계의 변화를 야기했다. 사회구성원들은 현재 상황을 신속하게 해석하여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를 선택해야만 하는 치열한 삶의 구조에 직면해 있다.

이제 연구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위험성을 가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간의 생존의 문제라는 근대적 사고체계에 기반을 둔 인간 인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자신들의 실존 유지를 위한 안전 욕구를 더욱 표출하고, 개인의 인성과 타자의 삶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고체계에 발맞추어 고등교육기관에서도 과거 논의되었던 다양한 교양지식 관련 교과 커리큘럼의 가치를 다시 교육현장에 회귀시키고 있다.[18]

현재의 위험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근대적 사고체계의 부활을 통해 집합적 안전문화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위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집합기억이 현재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타자에 의한 위험이 곧 인간 개인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 공동체적 기억체계는 결국 탈근대사회를 지배한 개인 중심의 파편화된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17) 지그문트 바우만, 『자유』, 문성원 역, 이후, 2002.
18) 민웅기, 앞의 글.

하나의 이념형적 진리관으로 완전히 변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함에서 오는 위험의 책임 문제 역시 그 상황에 대한 집합적 트라우마를 통한 집단의 전체 기억과 회고할 수 있는 강도와 빈도, 회고 내용의 지속성에 따라서 사회적 강제성이 부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집합적인 기억은 결국 시·공간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규칙과 가치에 구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9] 이처럼 사회적으로 구성된 집합적 문화의 영향력을 매개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동 지식과 실천 행동 규범들이 구체화된다.[20]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확실성의 시대로 바꾸고자 하는 인간의 효율적 사고체계는 그들에게 주어진 개별정체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등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기억의 공유를 유도한다.[21] 결국 또 다른 집단 중심의 전체론적 사고체계를 가져옴으로써 공동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근대적 사고체계를 부활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사회가 경험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회자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해온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적 집합기억은 근대적 사고체계에 의해 인간 삶을 규정하는 주요 심리적 기제가 되었다. 사회적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인간과 집단의 동요된 행동을 표현하는 사회화 매체들은 인간의 현재 삶에 대한 의미 규정이 집단 전체가 경험한 과거 경험에서 인지되는 집합기억에 의해 정착될 수 있음을 꾸준하게 은유적으로 환기하고 있다.[22]

탈근대적 사고체계에 근거한다면, 인간의 불안은 개별적으로 분기하게 되는 사회심리적 사고체계이다. 일반적으로 탈근대사회에서 한 개인은 특

19) Barbara A. Misztal, *Theories of social remembering*, Open University Press, 2003.
20) 박건, 「집합기억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운동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권 제1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07, 117-164쪽.
21)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22) Maurice Halbwachs, *The collective memory*, trans. by Francis J. Ditter, Jr., and Vida Yazdi Ditter, Harper & Row, 1980; 박건, 앞의 글.

정 사회에서의 다양한 위험 기제들로 인해 불안한 심리상태로 생활하기도 한다. 그리고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반복적인 심리상태는 개별적 인간 자아와 정체성을 기획하게 한다. 이 불안정성과 관련한 불안 형성으로 말미암아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경우, 예전에 발생한 집단 전염병, 다른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사회 위기 등의 과거 집합기억을 통해 공동체 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위험의 감정적 수용과정이 진행되고 있다.[23]

전술한 근대적 사고체계는 탈근대적 사회의 이질적 형태의 인간 사고체계와 경험을 유사하게 만들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개별적 불안 형태가 동질화되고 있는 것이다. 각 사회화 기관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부정적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함께 낙망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공유하여 인간의 독립적인 실존 형태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 결국 사람들은 집합적 공동체의 가치에서 더 많은 사회구조적 질서를 찾고자 한다. 결국 집합기억에 의해서 인간의 과거 기억들이 현재의 시공간에 새롭게 재등장시킴으로써 기억의 단편들이 시간적 순서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심지어는 위험에 대한 가능성과 정도를 수량화하여 표준화하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접한 수많은 데이터와 수치들은 이를 방증해준다. 그리고 사회문제에 해결책 역시 개인의 주체적 사고가 아닌 합리화된 공유 연결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24]

이처럼 인간의 자아는 이러한 집합적 인식의 재귀적 기획을 통해 형성된다. 특히 미래 위험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의식적 정체성뿐 아니라 물리적 인간 신체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5] 예를 들어서 위험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상적 활동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6] 그

23) 박명규,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 제51집, 1997, 41-76쪽.
24) 김원제,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사회의 조건』, 한국학술정보, 2017.
25) Anthony Giddens, 앞의 책.

리고 이 스트레스는 안전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자극하여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집합체의 형성을 유도하게 된다. 이 생산적 집합체는 구성원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네트워크 체계가 모여서 구조화된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위험예측을 위한 근대적 합리성 간 경쟁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예측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형성과정에서 다양한 개별 전문가들의 의견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변증법적 결합의 과정은 위험성이 내재된 환경에 대한 효율적 시스템화와 과학기술에 의한 경험적 요소로의 시스템화로 구조화된다. 사회공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급속도로 확대된 인간 통제 기제의 확산이라는 근대적 효율성의 가치는 최근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경험한 근대적 가치와 인간 인식의 내면적 지향성을 더욱 급속도로 전이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은 집합기억을 통해 실제 경험하지 않은 현재의 비경험적 위험요소에까지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27]

이 같은 계속된 위험 상황에 노출된 인간은 위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평가절하되어 그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제 다시 사회 내에서 재구축된 합리성의 가치는 근대사회를 지배한 산업사회의 인식체계를 재소환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신체에 대한 통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집단 전체를 위한 개인의 신체적 통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회 주류문화의 관행에 어긋나는 비의례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정도 역시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28]

즉 개별화된 과거 기억체계가 집단 내 구성원들 전체가 공유하는 집합기억의 탈분절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 시간 체계에 의한 근대적 사고체계

26) Ulrich Beck,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27) Ulrich Beck, 위의 책.
28) Anthony Giddens, 앞의 책.

는 분열적 문화구조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집단의 안전에 대한 수용과정은 다양한 전문지식 및 신뢰 체계 속에서 연구되고 있다. 물론 미래 지향적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사회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과학기술은 분열적 문화구조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의 수단으로 다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29] 근대성의 상징으로 고찰되어 온 이 과학기술의 건전한 활용 여부는 사회적 신뢰 관계를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의 학습 역량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된다. 최근 들어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관련하여 이를 연구하고 학습하는 교양교육이 중요해진 이유 역시 바로 인간의 신뢰 관계 형성이 단순히 개인의 의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환경과 함께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Ⅲ. 근대적 사고체계의 부활과 집단적 문화구조로의 전이

1.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 역량의 분열적 친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구성원 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집합적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체계는 안전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전문가 집단의 지식 체계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인간 생존의 수단적 기능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한 사회 내 생존 과정에서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면서 그 생산성과 효율성의 가치 체계를 사람들에게 다시 주입하고 있다. 위험에 대한

29) 김원제, 앞의 책.

인식은 집합적 수준의 시간적 기억의 연계망을 통해 집단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전달은 변화하는 환경에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신뢰 체계의 잘못된 운영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이고 위해적 측면의 문화로 변용되어 위험 상황을 더욱 확장하거나 사회문화를 불안정하게 지속시키기도 한다.

과학기술은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전체론적 시각에서의 집단의식을 더욱 하나로 응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관계망의 압축 현상을 가져왔다.[30]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네트워크는 공공성과 시장성을 넘나들며 인간의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연대와 유대의 복합적 기제로서 사람들로부터 문화적 승인을 받기 시작했다. '근대적 → 탈근대적 → 근대적' 성향의 문화변동으로 이어지는 유동적이면서 분열적인 현 문화체계 속에서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위험 상황의 극복을 위한 인간 역량 강화는 중요해졌다. 융합적 조율을 할 수 있는 지혜 체계의 학습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 역량은 변화하는 문화구조에 따라 분열적이면서 선택적인 친화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상호 호혜적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은 결국 인간의 상호작용 속 기초적 신뢰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안심할 수 있는 위험대응체계의 지속성을 부여해준다. 결국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간의 집합적 감정의 수용과정에서 그 개인은 사회집단 내 한 구성원으로서의 안정감 확보를 위해 위험 요소가 제거된 문화구조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위험현상은 그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과 규범 속에서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앞서 고찰한 집합기억과 같은 공동체에 존재하는 복합적 의식체계 내 친화적 역량의 형성과정은 분열적으로 반복된다. 그리고 위험을 제거하거나 인간이 다른 가치 체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인간 역량이 나가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게

30) Paul Bullen, & Jenny Onyx,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in NSW*, Management Alternatives Pty Ltd., 1998.

된다.[31]

이처럼 근대사회를 주도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과거 근대성에 의해 지배되었던 두 가지 이론적 논리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 진행된 근대성에 근간을 둔 이분법적 논리에서는 인간과 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해 인간의 과학기술 활용을 전제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과학기술의 안정화된 시스템은 인간 스스로가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추상적 신뢰 체계로서 기능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과학기술은 집합기억의 급격한 확산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선적 시계시간 구조에서의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극복을 위한 안전문화를 구현해준다. 근대적 사고체계의 재탄생으로 말미암아 인간 의식의 연결성과 전체성이 유지되며,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체계가 실질적 삶의 도구적 관점에서 과거 역사의 시간적 흐름과 함께 하게 된다.

탈근대적 사고에 기반을 둔 시간관은 상대적 시간관으로 시간 향유 주체의 다양성을 담보로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는 현재의 시간관은 과거 경험에 의해 내파된 집합기억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미래의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는 직전적 시간관의 근대적 사고체계를 다시 회귀시키고 있다. 현재의 의미가 미래를 위해 존재한다는 직선적 시간관을 통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적 문화코드는 현상학에 기반을 둔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사회현상에 내재한 본원적 의미나 구체적 실재가 구조화되는 과정에는 근대성의 문화에 근간이 되는 단일 사회질서와 진보적 미래관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공동체 전체의 존재 양식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합적 생존문제

31) Ulrich Beck, 앞의 책.

이다. 개인 삶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삶의 주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새로운 문화코드는 앞서 살펴본 탈근대론자들이 고찰한 존재양식의 주관성과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 전체의 정치, 경제적 안전과 객관적 사회질서를 위해 존재했던 중심성 문화가 기존의 시간적, 공간적 축적의 원리를 벗어난 탈근대적이면서 다중적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희석시키고 있다.[32] 과거 기억의 회상과 현재의 삶의 질서에 대한 향유 근거는 결국 안전한 생존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상에 대한 희망과 노력의 신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33]

이제 절대적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위험 패러다임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 전체는 위험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 유사하게 경험한 위험요소의 기억을 현실존체계에 덧씌워야 한다. 이 과정은 기억의 연장선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 문화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에 더 악화할 수 있는 위험의 예방은 과거와 현재의 지식체계와 규범의 실천 역량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인식체계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스스로 기억하고 싶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동시대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집합기억을 구성하기도 하며, 이 사고과정을 현재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타인과 공유하고 있다. 과거에 체험한 집합기억의 재구성 과정은 지금까지 생활양식(life style)을 중심으로 진행된 생활기회(life chance)의 박탈과 관련된 근대적 위험에 대한 사고체계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유인하고 있다. 생존과 관련한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비하기 위한 집단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근대사회를 지배한 집단 내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존재 의미에 대한 인식 흐름을 역(逆)으로 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간에게 불어 닥친 이 우연의 분열적 문화는 그동안 개인의 자유의 가치에 집합적 가치를 내재시켜, 개인 중심 문화 속에서

32) George E. Rejda,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6th ed., Prentice-Hall, 1999.
33) Barbara A. Misztal, 앞의 책.

큰 힘을 부여받지 못한 사회통제 부재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개별화된 자유를 추구하는 탈근대문화와는 또다른 집합적 가치체계라 할 수 있다. 개인으로서의 인간 감정이 개입될 수 없는 집단 수준의 위험에 대한 인간의 무력감은 자연스레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정의 집합적 연계 역시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근대적 사고체계의 추동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다양한 전문가 집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더라도 팬데믹 시대 이전 시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역행적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라는 우연적 요건에 의해 발생한 이 같은 근대적 문화에 인간 역량 역시 분열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집단 친화적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사회구성원들은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의 문화코드와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우연적 문화의 영향력 때문에 자신의 문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없애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와 통제, 개인과 집단의 상반되는 문화의 분열적 친화 구조가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지니는 분석적 사고체계의 근대성 논리가 개인 미래에 감정적으로 적용될 때, 허무주의적 탈근대문화와 중첩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 유동적 문화구조에 대한 심층적 학습이 필요함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2.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적 유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양교육의 중요성

사회구성원들은 새롭게 회귀한 근대성에 기반을 둔 문화체계로서의 집단적 사회구조에 적응하고, 외부환경의 통제에 대응하여 자원 획득의 효율성

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환경적, 문화적 구조의 영향력과 인간 존재로서 스스로 지니고 있는 욕구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에 이미 교양지식학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에 근거한 네트워크 구조와 관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식 구조의 체계화 모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위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로 대변되는 효율성, 예측가능성, 계산가능성, 통제의 표준화된 지식 가치 모형이 위험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대응적 유형화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34] 이 과정은 근대적 사고체계의 필수적인 인식론적 토대를 위해 교양지식의 유지와 전달에 순기능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미 다양한 사회화 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불확실성 시대의 환경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의 방향성을 선도하는 학문 분과별 연구영역 내 교양교육을 통해 도출되는 지식의 범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경우, 이미 대학교양교육을 통한 지식에 근간을 둔 학습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학 내 보편적 지식 학습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학습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상상력, 창의력 등의 비정형적 지식의 형질은 결국 불확실성의 시대에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력에 적응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행위 유형화의 공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잠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미래를 위한 진보적 가치의 부활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면서 위험한 환경적 상황들은 표준화된 근대적 사회질서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재인식시키고 있다. 건강 불평등에 직면한 사회하위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시스템의 연결, 원격 강의를 통한 교육접근성 강화, 예측불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심층 연구와 의학적 극복 과정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위험상황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현재 여러 융합형 지식

34)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김종덕 · 김보영 · 허남혁 역, 풀빛, 2017.

체계의 학습 성과가 도출됨과 동시에 함께 사회환경적 위험 역시 복합적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양교육기반 지식체계의 유형화 과정연구는 중요해졌다. 이 같은 근원적인 교양지식 연구의 재귀 과정은 과거와 다른 단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위험요소 양태에 대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체계의 안정적 구현을 촉진한다. 따라서 대학교양교육 과정 역시 존재론적, 인식론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상상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양교육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식을 둘러싼 개별적 학문영역 간 지식 공유 과정은 학습자에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적 유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동력을 제공해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근대적 교육 문화는 미래를 위한 지식 체계의 적층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구적 수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인간에게 실제적 위협 현상으로 찾아왔다. 이미 모든 사회문화적 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그 변용된 문화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전후로 가역적 사회환경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재구조화된 사회환경에 구성원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지식의 학습 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적 행동은 중요해졌다. 소위 사회화(socialization)라고 불리는 문화적응 과정과 관련한 인간의 자립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체계를 정비하고 구조화하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구성체가 실현해야 하는 주요 과업 중 하나이다. 그리고 학습자 역시 사회적 상호관계에 필요한 기존 교육체계를 꾸준히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윤리, 도덕, 선(善)과 같은 보편적 가치 교육과 각 학문 분과의 정체성이 구현되는 지식 교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양교육에 기반을 둔 지식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미 이 같은 변화한 환경이 비가역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의 기준은 객관적, 논리적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인간의 집합기억에 내재한 이성적 사고의 결과물일 것이다. 근대적 사고체계는 예

상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집단적 상호주관성이 모여 축적된 인식 과정을 통해 객관화되고 있다.[35] 결국 현재의 역행된 이 근대적 사고체계는 결국 과거 이성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그간 합리성의 근대적 가치를 재고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시대의 예상하지 못한 분열적 문화코드 변화로 인한 사회현상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대안적이면서 정교화된 교양지식 이론체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학교양교육 부문의 주요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대학교양교육은 집합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존재론적 가치를 다시 체화해야 하는 인성 교육구조 담론을 포함해야 한다. 불확실성에 기인한 다양한 위험과 거기에서 비롯된 인간 생존 위기, 죽음의 공포와 같은 과거 농경, 산업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고민한 의식적 회귀에 주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대에 인간에게 발생한 위험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배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학습자의 해결역량을 배양해야 한다.[36]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와 함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공동체주의 가치에 구성원들이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집단정체성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이 연대성 문화코드의 새로운 토대와 기준은 아직까지 불연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더욱 표준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AR)이 등장했으며, 이 새로운 인간의 활동 세계는 현재 인간 문화의 분열적 친화성의 소통과정과 사고체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식정보를 이루는 개방

35) 민웅기 · 김상학, 앞의 글; Maurice Halbwachs, 앞의 책.
36) 박명림, 「왜, 그리고 무엇이 사회인문학인가: 사회의 인문성 제고, 인문학의 사회성 발양을 향한 융합학문의 모색」, 『사회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비판적 인문정신의 회복을 위하여』, 김성보 등(편), 한길사, 2011.

된 빅데이터(big data)에 대해서도 근대적 사회 가치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기술 네트워크 체계는 생산성의 질서와 인간의 집합적 가치를 함께 배가시키기도 한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교양교육체계는 재귀적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론 및 연구방법의 적용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현재 이 같은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교양지식을 전수하는 교수법 역시 매뉴얼화되어 표준화된 형태로 교육자와 학습자가 이를 익히고 있다. 또한 대학교양교육 연구자들은 이 근대적 가치에 입각한 교육자의 지식 전달과정에서의 보완점에 대해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안적 교수법 개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과학기술 영역에서 탄생한 다양한 교육커뮤니티 공간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며 집합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역량의 문화적 연대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식 전달의 방법과 가치는 결국 그간 간과되었거나 당연하게 생각한 여러 가지 근대적 사고체계를 재귀적으로 사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식 전달과 학습의 기능적 역할을 이행하는 과학기술의 네트워크망은 집합적 가치를 실현하는 효용성과 생산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Ⅳ. 유연사회에서 고려할 대학교양교육의 재귀적 논의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유연사회(flexible society)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37] 이 유연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체계의 안정화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이 약화되어 활동 경계가 없어지게 되고, 기술 네트워크망에 의한 동질성 기반 문화와 집합적 생활 리듬이 생성된다. 유연사회의 특성 속에 포함된 주요 개념인 유연성은 시간, 노력, 비용과 관련한 인간의

37) 김문조, 앞의 책.

실행과정에서 그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인식적, 행위적 특징을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에서의 이 유연성은 문화구조의 재해석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위기 대처 과정에서의 사회심리적 민감성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집합구조의 제도적 특징과 문화적 연계 과정을 통해 이 민감성의 유동성 구조가 거대화되고, 그 성격은 동질화, 동형화되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38]

한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불안정성의 위험 문화가 재구조화되는 과정은 근대적 사고체계가 지닌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 유연성은 내재적 유연성과 외재적 유연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내재적 유연성은 변화의 요구에 대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교육의 실행, 직업군의 범주 구분과 배치, 변화에 대응하는 집단의 팀워크로 실현된다. 반면 외재적 유연성은 한 집단이 다른 타자나 외부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물리적, 의식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 유연성은 주로 어떤 집단이 타집단을 포함한 외부환경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통해 빠른 교환 및 거래관계의 성립으로 실천된다.[39]

유연사회에서는 외부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을 갖춘 교양지식 학습이 중요해지고 있다. 유연사회에 필요한 교양지식의 학습은 많은 학습량을 전제로 하며, 학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의 급속한 변화에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이 요구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교양지식의 학습을 통해 변덕스러운 문화적 변화에 선택적, 중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효율성의 가치를 체화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험 상황을 두고 근대성의 가치 중 하나인 예측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사고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왜 통제하지 못했고, 계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근대적 가치를 함양할

38) 조지 리처, 앞의 책.
39) Chris Benner, *Work in the new economy: Flexible labor markets in Silicon Valley*, Wiley-Blackwell, 2002.

수 있는 효율성에 근간을 둔 근대적 지식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명료하고 효과적이며 구분된 합리적인 근대적 지식 전달 과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인간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즉시적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고체계로 부각하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는 인간을 가장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규범적, 당위적 요소를 지식에 담아야 하며 지식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지되는 정체성은 과거의 기억, 관련 지식, 전문가 집단 속에서 규정됨으로써 위험 상황의 현실 파악과 구체적인 대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40] 그리고 그 대처행동은 환경변화에 따라 분명한 이념형적 유형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외부환경의 위험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지식전달체계 중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대학교양교육은 이 유연성의 가치를 함양한 지식콘텐츠를 구조화하는데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지식 체계는 이성적 판단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합목적적인 행위 체계는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단선적 시간 구조 과정에서 인간에게 심리적 쾌감의 원천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적 능력의 작용을 통해 또 하나의 형식적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사고체계가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관조적 주체로서의 인간 의식을 더욱 부각시킨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은 급격한 구조적 사회변화에 직면한 인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대학교양교육체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 간 상호작용 속에서 암묵지의 형태로 인식되는 사회적 합의가 형식지화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집단적 사회규범과 윤리인 것이다.

---

40) Anthony Giddens, 앞의 책.

여러 세대를 통해 꾸준하게 연구되면서 인간의 집단적 규범의 담론 연구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성찰성과 안전이라는 집단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분절되어 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구성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각 견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철학적, 이론적 교양지식의 학습도 함께 주목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형화된 지식 구조화 과정이 이어졌으며, 소위 말하는 통합교과적 교육구조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 통합교과적 과정은 병렬적으로 구성된 관련 학술 지식을 범주화하고, 이를 융합하여 지식을 상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기에 강조되는 융합적 학문 추구의 지적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개별화된 학술 지식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초 학문분야에 대한 심층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경험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타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 교육자들이 심도있게 고찰함으로써 해당 지식을 다시 학습자에게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전달하는 기초 학문분야 연구의 강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기에 강조되고 있는 융합형 교수법의 개발 역시 현재의 불확실성 시대의 분열적 문화구조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기초 학문분야 지식 연구의 중요성이 전제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학문분야 지식은 흔히 말하는 인문학, 역사학, 철학 등 성격상 기초학문 분과로 명명되는 영역은 물론, 각 개별전공 교과 분야에서 기초지식으로 배우는 하위 지식 층위의 학술 영역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의 방향성은 학문 간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학술 연구의 방향성이나 타학문 분야의 연구자 간 공동연구, 다양한 연계형 학술심포지엄 개최가 증가한 현상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기초소양, 기초학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학교양교육체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새롭게 창출하려면 현재 급변하는 유연사회의 환경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양지식을 발굴하고, 이를 기초지식 플랫폼 등을 통해 유형화하여 연구, 전달, 학습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위험사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통합적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는 대학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구체적인 재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대학교양학문 지식의 영역도 학습자 개인과 그 개인이 구성하는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형화 과정에 놓여 있다.

이제 대학교양교육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능적 역량과 더불어 인간이 살아가는 실존적 의미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구현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인간으로서의 본원적 존재로서 기본 권리를 체화하는 과정은 보편적 가치 교육을 둘러싼 불평등 체계를 없애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 통합적 지식교육은 개인 삶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적 학습체계 구성과 관련된다.[41]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교양교육의 근간이 되는 학문 분야의 기초지식에 기반을 둔 유연성의 학습은 인간에게 가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 생존을 위한 환경 내부와 외부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학교양교육 과정은 사회구성원들이 위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 지식체계 구조에 내재한 적용 범위와 층위를 일정 부분 유지하되, 예상치 못한 인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지식 네트워크 구조 분화 및 안정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형화된 학술이론지식 프레임은 현재 존재하는 다학제적 지식 모델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현재의 위험사회 극복을 위해 전통적인 학술지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위험사회의 이론적 문화코드를 분석, 해석, 예측하고 상상력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 근대성을 지배한 과학기술이 지식 전달

41) Jack Barbalet, *Citizenship: Rights, struggle and class inequali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에 활용되기도 한다. 대학교양교육에서 추구하는 문화코드의 특성은 문자 텍스트 기반 기초학문 콘텐츠를 주로 읽으며 사유능력을 함양하기도 하고, 다소 휘발성은 강할 수 있으나 영상 교육의 연계적 교육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소통 매체를 활용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식 전달의 목적과 수단이 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불확실성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대학교양지식 교수법은 이제 더 이상 생경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인문학 기초학술지식 교육과정의 통합지식적 전달체계에 존재하는 단어인식, 독해력, 이해력, 감성능력 부족 등의 학습자 간 차이는 물리적으로 지원되는 기술적 강의 시스템으로 많은 부분이 극복가능하게 되었다. 유연사회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자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기술시스템의 활용을 간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즉 대학교양교육체계에서 학습자의 사유체계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 비공식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고의 주관성에 대해서는 연계적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식의 유형화와 간주관적 사고체계의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유연사회 내 근대적 사고체계에서 이루어야 할 대학교양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한 존재론적 가치를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성과를 얻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원적 존재의식에 대한 많은 성찰이 실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심리적 변화와 행동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대학교양지식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졌다. 한 예로 현재 사회의 분열적 문화구조의 합리적 해석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소위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는 결국 평등한 학습 기회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필요한 공동의 가치를 제공하고, 그들의 학습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전략적 학습을 통해 학습 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정립하기 위한 학습선택 과정이라 할 수 있다.[42)]

이 같은 학습 설계모형처럼 인간의 적응능력을 능가하여 빠르고 광범위

하게 나타난 사회변화를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식체계의 다원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초학문에 대한 학습 설계의 수요가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다. 철학, 문학, 역사학, 기초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대학교양교과 교육자들의 분화된 학습 계획 수립과 변증법적 연구, 표준화된 평가 과정은 유연사회의 적응기제로서 현대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변화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분화 과정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는 역행적 문화체계로서의 대학교양지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불확실성의 분열적 문화구조 내에서 근대적 사고체계로의 회귀 현상은 교양교육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더 심층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구조적 조건을 만들었다. 한때 근대와 탈근대, 근대와 후기 근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가 있었으나, 탈근대를 대표하는 해체의 이념에 의해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 속으로 관련 논증의 중요성이 희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학술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했던 그 이분법적 성격의 인식론적 구조에 대한 시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 기술과 윤리, 생존과 생활의 가치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공론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이 분열적 문화구조의 해석을 두고 어떤 사고체계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 삶에 실존적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사회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시대에 특히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기존의 개별적 인성교육과 함께 동질성에 근거한 집단 전체의 안위와 관련한

42) David H. Rose, Anne Meyer, & Chuck Hitchcock (Eds.), 앞의 책.

가치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지식 전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이질적 탈근대성의 가치에서 동질성에 근거한 근대성에 기반을 둔 집합적 가치 이행으로의 전환은 과학기술의 효율성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기술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 삶을 지탱하는 고유한 안전망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다.[43]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인간의 생존 방법과 집합적 윤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의미에 대한 교육시스템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내재된 정책과 제도의 수립을 지원하기도 하며, 사회가 중심이 된 공공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예상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 역량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결국 연구자에게 교양교육에 기반을 둔 지식체계와 관련한 당위적 행위 방식의 유형화 과정을 고찰하게 유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문제를 처방하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의 내재화 과정을 추동하고 있다. 대학교양교육은 바로 이 새로운 인식, 행위 능력의 향상을 기하고, 논리적 학습과 추론을 시도하기 위한 재귀적 논의 속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근대성의 직선적 시간 개념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가역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이론지식 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 및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대학교양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인식체계에서 시작하여 사회 공동체로 이어지는 합리성 정도의 진폭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학문체계로서 해당 교과가 추구하는 사회적 안전망 갖추어질 수 있게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대학교양교육의 개방된 지식체계에 대한 경험적 학습은 대학교육을 위한 하위 분과 영역의 분화된 학습 과정의 활동 체계를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서의 집합적 가치를 발현하는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43) Robert D. Putnam, 앞의 글; Eviatar Zerubavel, *Hidden rhythms: Schedules and calendars in social lif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대학교양지식의 공유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들의 주체적이면서 능동적인 인식 및 활동 역량 강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불확실성 시대의 근대적 사고체계의 부활에 따른 대학교양교육의 재귀적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학문영역의 이론지식 학습을 위한 교육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양지식생태계의 위상을 경험적으로 좌표화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메타지식의 가치를 재확립하는 전인격적 교육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과학기술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메타지식으로서의 대학교양교육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공간을 확대했다. 또한 현대사회의 위험을 억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활용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학교양교육 관련 지식의 창조, 전달 과정은 융합적 지식의 구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결국 기초분과학문 지식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가능해진다. 대학교양지식 습득 경로의 형식화는 추후 사회구성원들이 불안정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내면화하고, 집합적 측면의 사회유대적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공공적 지식 인프라의 자생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44] 이를 위해 물리적, 의식적 생산성에 기반을 둔 분화된 학문체계의 구성을 이해하는 메타지식으로서의 학습 과정은 일반 시민들의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교양교육이 추구하는 이 재귀적 논의는 결국 시민들의 집합적 문제해결역량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식 실천의 원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체화해야 할 교양지식 체계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분화된 기존 분과학문 체계의 이론과 방법론을 공공성의 가치 속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유연사회에서 대학교양교육이 추구

44) Louis K. Comfort, William L. Waugh, & Beverly A. Cigler,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and practice in public administration: Emergence, evolution, expansion, and future direc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2*(4), 2012, pp.539-547.

하는 윤리적 시민의식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게 되는 것이다.[45]

이제 대학교양교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시대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사회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행위 유형의 이념형을 마련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재귀적 논의를 꾸준하게 시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유동적인 근대적 지식체계의 친화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신뢰에 근거를 둔 안전한 네트워크 체계로 거시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게 기능해야 한다.[46] 그리고 대학교양교육 연구자 역시 연대적 소통 구조의 확장 방법과 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존 방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5) 김혜란,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12, pp.213-240.

46) Ian Gough, *Global capital, human needs and social policies*, Palgrave, 2000.

참고문헌

김문조,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나남, 2013.

김원제,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사회의 조건』, 한국학술정보, 2017.

김혜란,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12, 213-240쪽.

미셸 마페졸리, 『현대를 생각한다: 이미지와 스타일의 시대』, 박재환 · 이상훈 역, 문예출판사, 1997.

민웅기, 「위험사회에 필요한 대학교양교육의 사고체계 탐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대의 상상력 구현」, 『대학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1호,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제7권 제1호, 2022, 5-24쪽.

민웅기 · 김상학,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집합기억과 시민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순천향인문과학논총』 제40권 제2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57-84쪽.

박건, 「집합기억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운동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권 제1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07, 117-164쪽.

박명규,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 제51집, 한국사회사학회, 1997, 41-76쪽.

박명림, 「왜, 그리고 무엇이 사회인문학인가: 사회의 인문성 제고, 인문학의 사회성 발양을 향한 융합학문의 모색」, 『사회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비판적 인문정신의 회복을 위하여』, 김성보 등(편), 한길사, 2011.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 백설자 · 채연숙 역,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유승호, 『디지털 시대의 영상과 문화』, 미술과 문화, 2006.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김종덕 · 김보영 · 허남혁 역, 풀빛, 2017.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이희재 역, 민음사, 2001.
지그문트 바우만, 『자유』, 문성원 역, 이후, 2002.
질베르 뒤랑, 『상상력의 과학과 철학』, 진형준 역, 살림, 1997.

Barbalet, Jack, *Citizenship: Rights, struggle and class inequali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Beck, Ulrich,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trans. by Mark Ritter, Sage Publications, 1992.

Benner, Chris, *Work in the new economy: Flexible labor markets in Silicon Valley*, Wiley-Blackwell, 2002.

Bullen, Paul, & Onyx, Jenny,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in NSW*, Management Alternatives Pty Ltd., 1998.

Comfort, Louis K., William L. Waugh, & Beverly A. Cigler,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and practice in public administration: Emergence, evolution, expansion, and future direc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2*(4), 2012, pp.539-547.

Fukuyama, Francis,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1995.

Galbraith, John K., *The new industrial state*, Hamish Hamilton, 1967.

Giddens, Anthony,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Polity Press, 1991.

Gough, Ian, *Global capital, human needs and social policies*, Palgrave, 2000.

Griswold, Wendy, *Cultures and societies in a changing world*, Pine Forge Press, 1994.

Halbwachs, Maurice, *The collective memory*, trans. by Francis J. Ditter, Jr., and Vida Yazdi Ditter, Harper & Row, 1980.

Misztal, Barbara A., *Theories of social remembering*, Open University Press, 2003.

O'Toole, Laurence J., Jr., "Treating networks seriously: Practical and research based agenda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 1997, pp.45-52.

Putnam, Robert D.,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1993, pp. 35-42.

Rejda, George E.,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6th ed., Prentice-Hall, 1999.

Rose, David H., Meyer, Anne, & Hitchcock, Chuck (Eds.), *The universally designed classroom: Accessible curriculum and digital technologies*, Harvard Education Press, 2006.

Thompson, John B.,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ritical social theory in the era of mass communic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Zerubavel, Eviatar, *Hidden rhythms: Schedules and calendars in social lif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Abstract

Resurrection of the Modern Thinking System in Times of Uncertainty and Recursive Discussion on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 Interpretation of the Structure of Disruptive Cultures

Min, Woongki(Mokwo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odern thinking system is reviving in times of uncertainty when COVID-19 has spread, including its phenomenon and meaning, and the need for a recursive discussion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in order to respond to it. In the face of COVID-19, the social order based on individualized and fragmented cultural diversity,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post-modern value, is reconverted to a modern value based on rationality and efficiency included in public and collective values. As the modern thinking system is resurrecting, the learning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becomes more important for members of modern society to adapt to the retrograde and disruptive transitional culture. Liberal arts education at universities that identify themselves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a network of trust for safety built by a group of experts and drives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human capabilities to adapt to an uncertain environment. Therefore, the recursive discussion on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should be continued.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in a flexible society has important implications because it provides fundamental universal values that enable humans to correctly interpret and respond to the structure of current disruptive cultures.

[Key Word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modern thinking, collective values, times of uncertainty, strengthening human capabilities

접 수 일 : 2022년 08월 07일
심사완료 : 2022년 09월 08일
게재결정 : 2022년 09월 09일